

■ 스펡글리쉬, 스페니쉬, 잉글리쉬

호아킨 가리도

리카르도 오테기의 말을 인용하자면, 스펡글리쉬의 개념은 미국에서 스페인어와 영어의 접촉을 논의하는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는 연결 고리이다. 오테기는 “너에게 뒤로 줄게(Te doy para atrás)”[영어의 ‘돌려주다’(give back)를 스페인 단어로 옮긴 것으로 스페인 어휘와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다]처럼 차용 번역 문장을 예로 들면서, 미국 히스패닉이 사용하는 언어의 앵글로화를 “단순히 그들 문화의 앵글로화”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는 여기서 두 종류의 스펡글리쉬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스페인어 원어민이 사용하는 스펡글리쉬는 이른바 ‘적응하는’ 이중언어인 반면에 영어 원어민이 사용하는 스펡글리쉬 중 일부는 미국 영어의 문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미국의 스페인어 원어민은 스펡글리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란 스타반스가 말한 “새로운 미국 언어의 창조”에 참여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영어가 지배적인 사회와 문화에 적응 중이다. 이들의 스펡글리쉬는 사실상 적응하는 이중언어이다. 화자가 선택하는 문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 방언이다. 즉, 화자는 “너에게 돌려줄게(te devuelvo)”와 “너에게 뒤로 줄게(te doy para atrás)”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스펡글리쉬는 단순화된 이중언어가 아니라 적응하는 이중언어이다. 화자는 영어권 문화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적응하지만, 오테기가 주장하듯, 대부분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



멕시코 인 모녀와 미국인 가정이 함께 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 《스팽글리쉬》. 영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딸 크리스티나는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는 라티노 2·3세대의 모습이다.

그들은 적응할 필요가 없다. 어떤 문체를 선택하는 것처럼, 스페인어에 영어를 섞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어에 스페인어를 섞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 형성에 목적이 있다. 이 특별한 문체 선택은 미국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뉴멕시코의 어떤 교수는 “스팽글리쉬가 ‘저스트 스트리트 슬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Se les dedica este trabajo a todos mis alumnos que piensan que Spanglish is just some street slang)”이라는 말로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헌정하고 있다. 또 매사추세츠의 한 스

는 것이다. 스페인어 적응은 문화적·사회적 통합을 따라간다. 이런 스팅글리쉬는 스페인어의 다양성 중 하나이다. 프란시스코 모레노 페르난데스가 지적처럼, 변방에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주요한 차이이다. 영어를 차용하여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스페인어 원어민에게는 스팅글리쉬가 선택이 아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반면, 영어 원어민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의 합성은 선택이다. 화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에서 스스로를 영어 원어민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페인어 교수는 학생들과 스펡글리쉬를 사용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헌정하면서 “내 ‘에스투디안테’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호스 에스팡글리사도스’에게(To mis estudiantes... and to... mis beloved hijos espanglishados)”라고 썼다. 두 교수 모두 미국 사회에 소속된 것이지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펡글리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영어의 문체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어의 사회 방언이다. 곤살레스 에체바리아는 1997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교육받은 히스패닉”은 스펡글리쉬를 사용함으로써 “주류 문화의 구성원임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스펙글리쉬는 행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스펡글리쉬를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한다. 사실은 이와 반대이다. 오히려 그들은 힘 있는 소수종족으로서 자신들이 주류문화에 속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어느 미국 정치가의 세계관으로 보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라틴어를 말해야 하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히스패닉은 새로운 미국 언어인 스펡글리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이들이 스펡글리쉬를 사용한다. 그들은 몇몇 명목상의 스페인어와 함께 영어를 말한다. 그들의 영어 속에 등장하는 스페인어는 “너는 나를 히스패닉(라티노 혹은 치카노 등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리카르도 오테기와 오펠리아 가르시아는 “미국적인 맥락에서 스페인어를 말하는 라티노는... 언어와 문화의 잘못된 조합에 사로잡혀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사우라 베르날-엔리케스와 에두아르도 에르난데스 차베스는 “스펙글리쉬라고 경멸적으로 불리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섞인 언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이중언어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곤살레스 에체바리아는 스펡글리쉬를 사용하는



급성장하는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의 영향으로 인해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 수업의 대부분이 스페인어로 실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가난한 히스패닉들로, 대부분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스팅글리쉬를 사용하는 것은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할 스페인어 교육과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한다. 어쩌면 이들은 존 립스키가 말하는 반화

자(semi-speakers)나 ‘과도기적 이중언어 사용자’, 즉 “언어 습득 능력은 원어민과 별 차이 없지만 결코 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는” 이들이 아닐까? 스팅글리쉬에 대한 두려움은 널리 퍼져있다. 로저 에르난데스는 매사추세츠 대학 암허스트 캠퍼스의 일란 스타반스 강의에 대해 논하면서, “스팽글리쉬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표준 스페인어를 배울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프란시스코 마르코스 마린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스팽글리쉬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를 구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스팽글리쉬와 그 화자들은 스페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존 후아리스티는 “스팽글리쉬는 언어가 아니고, 스페인어 원어민이 영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다 실패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스페인어 문제라기보다 영어 문제이다. 립스키는 “과도기적 이중언어 사용자”는 “스페인어와의 강한 동질감을 히스패닉 정체성의 긍정적인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히스패닉이라는 사실은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아르놀포 라미레스에 의하면 “히스패닉에게 스페인어는 원하는 것이고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카르멘 실바-코르발란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언어 사용자는 대체적으로 전통을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 선조의 언어를 유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 언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ispanic Journalists)는 그들의 사명을 언급한 선언문에 스페인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들은 협회의 목표 중 하나를 “정체성”이라고 언급하며, “히스패닉 대중매체 종사자들의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 권익, 관심사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결성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들은 웹사이트에 스페인어 섹션을 마련하고 있고, 2004년 3월에 출판된 스페인어판 문체 편람을 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는 그들의 활동에서 명시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정체성은 소수 종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류에게는 소수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정의가 필요하다.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와 같은 종족그룹에 속하는 사람들과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은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다. 뉴스에서는 히스패닉과 아시아인들을 ‘소수 종족’이라든가, ‘2050년대 중반쯤에는 백인이 더 이상 다수를 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다룰 뿐이다. 스페인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없다. 중요한 것은 수치이다. 즉, 알론소 살디바르는 “2050년에 미국 인구는 4억 2천만이 되고, 미국 인구조사의 예측에 의하면, 히스패닉은 현재의 3천 6백만에서 1억 3백만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아직까지는 언어가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베아트리스 파스토르는 영토와 무관한 공동체로 히스패닉을 정의하고자, 유대인 공동체를 “영토적 기반, 때로는 언어적 토대조차 없이 정체성을 유지해 온 지닌 공동체” 중 역사상 “가장 명백한” 예로 들고 있다. 스타반스 또한 “스팽글리쉬는 오늘날의 이디쉬[독일어에 슬라

브어와 히브리어를 섞어 쓴 히브리어. 유럽과 미국의 유대인 사이에서 주로 쓰며,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도 사용함.]인가?”라고 질문하고, “조금은 그렇고 조금은 아니고”라고 대답한다. 파스토르는 “영토적 경계 없는 공동체”로 히스패닉을 정의하면서 “스페인어라는 고유의 언어적 기반이 있지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가 스페인어로 글을 쓰면서, 이중언어를 근거로 미국 내 히스패닉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주창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 히스패닉은 종종 스페인어 원어민과 동일시되어 언급된다. 후안 라몬 로다레스는 “2050년 미국은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1990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1,730만 명(5살 이상의 2억 3,040만 명의 인구 중 영어 유일 사용 인구는 1억 9,860만 명)이 스페인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는 5살 이상 인구의 7.52%에 해당한다. 2000년에는 2,810만 명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한다. 미국 인구 중 스페인어 원어민이 7.5%정도라면, 2050년 1억 3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중 어느 정도나 스페인어를 실질적으로 구사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2001년 스페인 한림원 전 원장인 페르난도 라사로 카레테르가 스페인어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멕시코의 역할에 달려있다”라고 대답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호의적이지 않은 논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삼분의 일 이상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가난한 인접국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인구 유입에 직면해 있다. 멕시코 이민자는 2000년 미국 출생 인구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큰 중국인과 필리핀인은 각각 4.9%, 4.3%이다. “히스패닉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10% 가량 증

가했고, 현재는 흑인 인구보다 더 많다.”

마르 빌라르는 뉴멕시코 주를 언급하면서 인구 중 39%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밝힌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5살 이상 인구(485,681명)의 28.7%가 집에서 스페인어 혹은 스페인어 크레올을 구사하고, 이 인구 중 67.3%(327,052명)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17.7%(86,041명)가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집계됐다. 5%(24,471명)는 전혀 영어를 할 줄 몰랐다. 가장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높은 주(42.1%의 히스패닉 대 44.7%의 백인)로서 28.7%가 집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그들 중 대다수 즉, 85%가 영어를 유창하게 또는 능숙하게 구사한다. 스페인어 원어민의 절반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공무원, 의료종사자, 대학 교원과 스페인어로 소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핵심적인 문제는 스페인어는 집에서 사용하고, 비즈니스는 영어로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1세대 스페인어 원어민은 여전히 스페인어 미디어를 통해 미국 문화에 적응한다. 그들의 “선택은 단지 언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라우라 위데스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니카라과인의 예를 들면서 “그녀는 선택은 자신과 관계된 뉴스를 읽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이민법이든, 라틴 팝스타에 관련된 것이든”이라고 쓰고 있다. 위데스에 따르면, 스페인어로 된 신문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자신의 본국과 얽혀있는 연결 끈이다. 나이트 라이더는 마이애미에서 《누에보 헤럴드 Nuevo Herald》 지를 8만 8천부 발행하고 있고, 임프레메디아 (Impremedia) 사(社)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오피니언 La Opinión》 지를 125,862부, 《엘디아리오/라프렌사 El Diario/La Prensa》 지를 뉴욕에서 5만 3천부 발행하고 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의 발행사인 트리뷴(Tribune

Co.)은 《오이 Hoy》 지를 뉴욕에서 9만 4천부, 시카고에서 1만 8천부를 발행하고 있고, 2004년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판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텔레비전, 케이블, 라디오 또한 마찬가지인데, 디그비 솔로몬에 의하면, “스페인어는 대부분의 히스패닉 부모, 조부모들이 선호하는 광고 언어이고, 18세 이하의 인구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교양 스페인어 구사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암파로 모랄레스에 따르면 스팅글리쉬 혹은 “기호 변환의 스페인어-영어의 혼합 언어 방식”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일정한 공식적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인지도란, 스타반스의 말을 빌리자면, “가난한 히스패닉”의 스팅글리쉬에서 “리오 그란데(Río Grande)강 이북의 라티노들 사이에 한때 만연한 열등감을 떨쳐버렸다는 의미를 지니는” 스팅글리쉬로 바뀌는 흐름을 일컫는다. 스타반스가 강조하듯, 상당수의 비(非)히스패닉 그룹이 스팅글리쉬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 원어민(이른바 앵글로인)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머린 도우드조차 뉴욕타임스에 “아마도 포코스 미누토스(몇분) 더 가야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라디오 영어 광고에서도 구매자에게 “승자, 누메로 우노(1등)”이라고 약속하거나 혹은 “제로, 지프(zip), 나다(아무 것도 아님)”라고 사용한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터미네이터일 때 사용한 “애야, 아스타 라 비스타![다음에 봐]”또한 스팅글리쉬의 예로 인용되고 있다. 에드 모랄레스에게 스팅글리쉬는 “스팽글리쉬 사용인으로 살기” 혹은 “스팽글리쉬 사용인이 되기”이며 치카노 정체성이라는 일종의 문학적 표시라고 말한다. 스팅글리쉬는 글쓰기에 관한 것이고, 『돈키호테』를 스팅글리쉬로 쓰고 있는 새로운 피에르 메나르[주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

스 작품의 등장인물]이다. 마치 스타반스가 『돈키호테』를 스펡글리쉬로 번역하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아포르멘시오나도 신사는”이라고 쓰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아나 리디아 베가의 단편 「포이토[닭] 치킨」에서 나타나듯이 두 가지 목소리(voice), 두 가지 언어로 창작하는 것이다. 저자는 남성의 대화 부분은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Pide room service en ingl s legal pero, cuando la pongo a gozal, abre la boca a grial en boricua: -¡VIVA PUELTO RICO LIBREEEEEEEEEEEEEEEEEEE! [그녀는 룸서비스를 정식 영어로 시킨다. 그러나 내가 그녀와 성관계를 갖자, 그녀는 입을 열어 푸에르토리코 스페인어로 소리지르기 시작한다. - “비바 푸엘토리코 리브레에에에에에!”]

반면 저자는 여성의 대화 부분에는 정식 영어를 사용한다. 반면 화자는 남성의 영역도 여성의 영역도 아닌 지대에 머물면서 스페인어인지 영어인지 모를 언어를 구사한다.

I really had a wonderful time, dijo Suzie Bermi dez a su jefe tan pronto puso un spike-hill en la oficina.[수지 베르미우데스는 상사에게 말하면서 사무실에서 곧 굽 높은 신을 신었다]

스타반스는 이것이 빈티지 스펡글리쉬라고 주장한다. 이 스펡글리쉬는 미국의 이중언어 사용자의 영어 사용 방식으로서, 하나의 문화이다. 혹은 11세 소녀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꿈을 꾸었어. 스페인과 미국에서 온 내 친구들이 모두 함

게 있었어. 개네들은 모두 스팅글리쉬를 했어.” 나는 스팅글리쉬가 무엇인지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는 “반은 스페인어, 반은 영어야”라고 대답했다.

우리 모두 현실로 돌아와 보자. 헌팅턴은 「히스패닉의 도전」이라는 글의 ‘제2언어로서 스팅글리쉬’라는 부분에서 “스페인어는 미국의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 이 경향이 지속된다면 히스패닉과 앵글로의 문화적 분리가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분열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적 분리를 대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언어가 문화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스페인어가 사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소수 민족과 주류로 나뉜다는 것이고, 헌팅턴을 괴롭히는 급증하는 멕시코 이민자와 스페인어 원어민은 정당하게 주류에 속하길 원하고 있다. 거기에서 길은 영어이지 스페인어나 스팅글리쉬는 아닐 것이다. 그들이 주류로 가는 길에 스페인어는, 헌팅턴이 말하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미국과 영어를 말하는 미국사이의 현저한 분열”을 봉합시켜줄지도 모른다. 물론 영어 원어민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자 원할 경우에 말이다.□

[서라연 옮김]

호아킨 가리도 (Joaquín Garrido) -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교수. 2005년까지 뉴멕시코 소재의 ‘세르반테스 문화원 Instituto Cervantes’의 소장으로 역임했다.

* 이 글의 원제는 ‘Spanglish, Spanish and English’로 2004년 4월 미국 애머스트 대학(Amherst College)에서 개최된 <제1차 스팅글리쉬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